

## 중국 - 금년의 인플레이를 어떻게 막느냐가

### 가장 중요한 실마리 <2/2>

매크로 경제 관점에서는 2010년 제1사분기 ~ 제3사분기의 경제성장율이 시원치 않아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되었다. 9월 이후에는 물가가 갑자기 올라서 인플레이론(inflation論)이 나오고, 매크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.

그러나 중앙은행이 하나의 연속된 “매크로 컨트롤 책”을 발표하여 경제운영을 안정시켰다. 2010년 사분기별의 “공업부가가치 성장률”은 19.6%, 15.9%, 13.5%, 13.3%로 공업생산의 호조가 경제전반을 뒤에서 강하게 밀어준 것을 엿볼 수 있다.

“온가보 총리(溫家宝 總理)”는 2011년에 들어서 3번에 걸쳐 물가문제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보이고, 물가 안정을 2011년도 경제행정의 중심으로 정하였다. 그 결과 인플레이 압력에 대하여는 한번 이자를 올리고 2번은 “예금준비금율(預金準備金率)을 인상하였다. 또한 중앙은행 화폐 정책위원회에서는 과거 5개월에 중앙은행은 3번에 걸쳐 이자를 올리고, 예금준비금율을 5번 인상하였다. 이로서 인플레이에 브레이크를 걸 결의를 명확히 보일 수가 있었다.

또한 2월 27일 인플레이 예측이 인플레이 그 자체보다도 무섭다고 한 다음에, 앞으로는 ① 화폐유동성을 억제하고, 물가고등으로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 ② 생산, 특히 농업생산을 촉진하여, “식량성장책임제(食糧省長責任制)” “채람자시장책임제(菜籃子市長責任制)”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③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④ 법적수단으로 시장을 관리하여, 매점, 바람을 탄 구매를 막는다...는 4가지 시책으로 인플레이 예측 컨트롤을 강화한다고 하였다.

2011년의 물가등세(物價騰勢)에는 ① 화폐공급량 증가와 물가상승과의 사이의 과급 메커니즘에 변화가 생겨,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황을 배경으로 한 농산물 투기의 움직임

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② 타향에서의 돈벌이 농민의 부족이나 구인난으로 제조업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있다 ③ 미국 연방 준비 이사회(美國 聯邦 準備 理事會)가 실체 경제 서포트 정책으로서의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하였다...등의 배경요인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. 금년은 분명히 물가고를 일으키는 압력이 있는데, CPI(consumer price index : 소비자 물가지수)의 인상폭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.♣